



보도시점 2024. 1. 1.(월) 12:00

[2024년 행정안전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 7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공표
- 시범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수가 많았으며, 단양은 8.6배로 가장 많음
-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분기별 공표,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료로써 활용 기대

### <생활인구 산정 결과 활용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맞춤형 정책 예시>

- 생활인구 산정 결과 ㄱ시는 주민등록인구는 5만여 명이지만 실제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는 20만여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번 산정을 통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40대 남성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었다. ㄱ시는 40대 남성 선호도가 높은 수영장,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입주한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해, 이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ㄱ시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밤늦게 까지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단기 숙박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야간 매점, 공용 샤워시설, 세탁·건조시설을 설치해 체류 만족도를 높인다는 목표이다.
- 인구가 3만 명에 못 미치는 ㄴ군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이번 생활인구 분석 결과 주민등록인구의 9배에 가까운 25만 명이 지역에 실제 체류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체류인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50~60대 체류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외 ㄷ시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ㄴ군은 이를 고려하여, 건강체험·힐링푸드 등 중장년층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ㄷ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민과 동일한 관광지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체류인구 대부분은 당일 또는 1박2일 지역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군은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천형 전통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등 수요자 맞춤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이다.

□ 인구가 5만 명 수준인 ㄹ군은 생활인구가 20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외국인이 1만여 명에 달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ㄹ군은 외국인 중 계절근로자가 대다수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 출신국가의 언어로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다문화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이 원활하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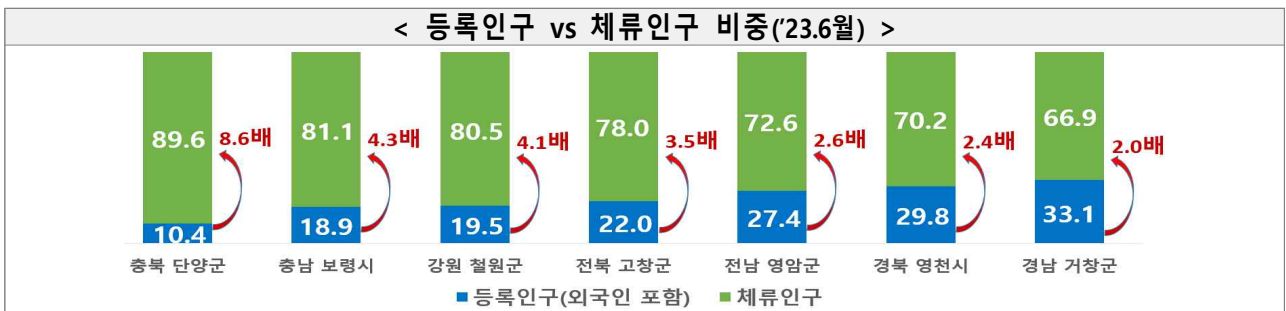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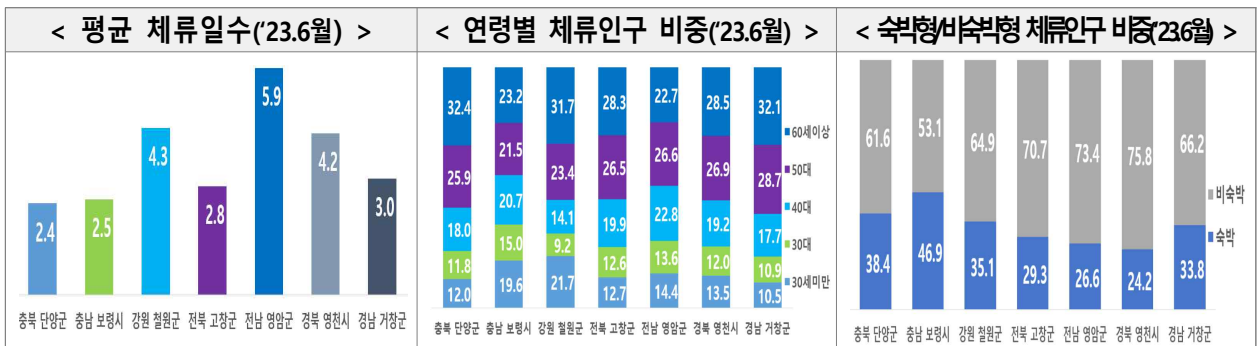
- 이번 결과는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한 것이다.
- \*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 이번 생활인구 산정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와 통신3사의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 통계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규모를 포함하여 체류특성 및 숙박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생활인구 산정 연구를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선정하고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결합, 내부지침 수립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 7개 지역은 체류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 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됐다.

○ 관광유형은 지역은 관광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며, 군인 유형은 군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통근유형은 산업 단지가 조성된 지역이며, 외국인유형은 일손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 지역이다. 통학유형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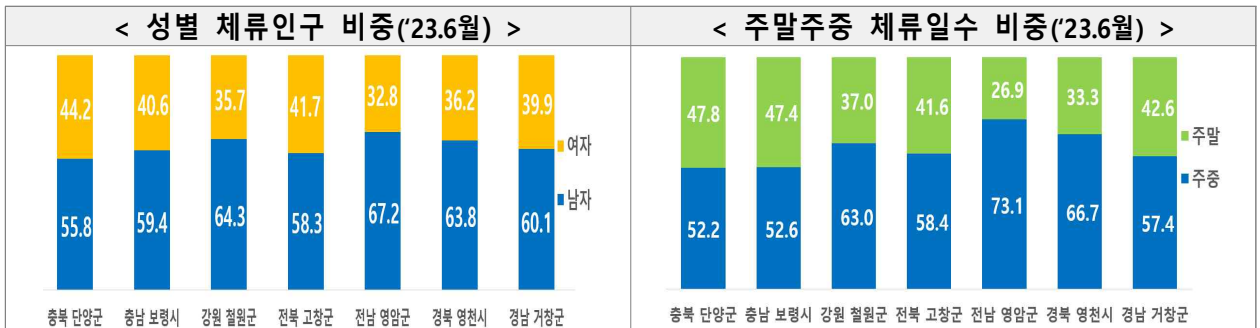
□ 산정 결과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고, 특히 관광유형인 충북 단양군의 체류인구는 6월 기준으로 등록인구의 약 8.6배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관광유형 지역 충북 단양, 충남 보령의 경우 체류일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짧았으며, 30세 미만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젊은층이 짧게 관광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관광유형은 숙박형 체류인구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크게 나타났다.



□ 통근유형 지역 전남 영암, 경북 영천에서는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특히 높고, 평균 체류일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숙박형 및 주중 체류인구의 비중이 높아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음을 시사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며,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추가 연계하여, 소비업종 및 금액 등을 통해 생활인구 특성을 세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또한,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부여나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국가의 재정 지원 기준에도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인구감소시대에 변화된 인구개념을 반영한 생활인구를 지역소멸을 막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며, “이번 생활인구 산정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형석 (044-205-3501)
		담당자	주무관	최고야 (044-205-3519)
담당 부서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책임자	과 장	김근식 (042-481-6903)
		담당자	사무관	이상엽 (042-481-6907)
담당 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태현수 (02-2100-3071)
		담당자	주무관	김근후 (02-2100-3077)



## 참고 1

## 생활인구 개요

### □ 추진배경

-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 활용 필요
-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도입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23.1.1. 시행),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23.5.18.)

### □ 생활인구 개념(「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 (주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체류하는 사람)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 1회(시행령), 하루 3시간(고시) 이상 머무는 사람

#### < 체류시간 기준(하루 3시간) 근거 >

- ▶ (활동별) 일(3시간1분), 학습(3시간29분), 여가(3시간39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수준(약 3시간) 고려(통계청, '20년)
- ▶ (지역별) 인구감소지역(4시간47분), 관심지역(3시간52분) 방문자는 평균 3~4시간 정도 체류(한국관광공사, '22년)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시행령 제2조제2항)

### □ 향후 일정

- 시범 산정 결과 분석·보완 후,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산정('24년)
  - ※ 인구감소지역의 월별 생활인구를 분기별 공표



## 참고 2

## 지자체 생활인구 증대 사업 사례

<p>워 케 이 션</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li> </ul> <p>□ (사례) 곡성군 「워크빌리지 IN 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옥마을 유휴시설 활용해 오피스 공간 조성, 공유차량 서비스·관광·공유주방 서비스 제공</li> <li>▶ '22년 시범사업 실시, '23.6월까지 약 110개 기업 참여</li> </ul>
<p>농 촌 유 학</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에 거주하던 학생들이 일정기간 농촌에 살며 현지 학교를 다니는 프로그램</li> </ul> <p>□ (사례) 해남군 「작은 학교 살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집정비 사업과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연계, 귀농·귀촌자에게 주거, 자녀 교육,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제공</li> <li>▶ '23년 1학기 농촌유학생 63명(38가구) 유입</li> </ul>
<p>숙 박 체 험</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민박+농촌체험으로 일정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힐링하는 생활관광 프로그램</li> </ul> <p>□ (사례) 강진군 「푸소(Feeling Up-Stress Of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에 숙박하며, 텃밭가꾸기, 빵·과자 만들기, 가축 먹이주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li> <li>▶ 총 방문객 46,935명, 총 농가수입 4,085백만원('15~'22.9월)</li> </ul>
<p>관 광 산 업</p>		<p>□ (사례) 철원군 「주상절리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적 관광객 100만명('22.11월), 입장권 수입 약73억('22.11월)</li> </ul> <p>□ (사례) 한국관광공사 「디지털 관광주민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방문객에게 숙박식음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li> <li>▶ 정선, 평창, 제천, 옥천, 남원, 신안, 거창 등 15개 지자체 운영</li> <li>▶ 강원도 평창 : 발급자 수 6만7천명(정주민구 4만여명)</li> </ul>
<p>치 유 산 업</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의 청정한 환경, 경관, 산림·해양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자원을 휴식, 건강, 체험 등에 활용</li> </ul> <p>□ (사례) 완도군 「치유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 해변에서 맨발 노르딕 워킹, 오감 치유 명상 등</li> <li>▶ '18년부터 '22년까지 총 381회 운영(25,104명 체험)</li> </ul>